

ATS (Advancing The Standard) 기계판막의 단기임상성적

고려대학교 흉부외과학교실

김 학 제 · 조 성 준 · 류 영 진 · 조 원 민 · 손 영 상 · 최 영 호

새로운 인공판막의 도입은, 심장외과의 및 심장 전문의로 하여금 그판막의 성능과 장단점을 연구검토하게 하는데, 그간 St. Jude 기계판막 (SJMV)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오던중, 이를 보강한 같은 이엽성 Disc 판막인 ATS (Advancing The Standard) 판막이 개발되어 1992년 5월 Switzerland, University of Lausanne에서 첫 치환을 시작으로 최근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판막치환술시 ATS 기계판막이 이용되고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는 1994년 8월부터 1995년 8월까지 21명의 환자에게 28개의 ATS 기계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다.

환자의 연령은 평균 37 ± 9 세로 남녀비는 11:10 이었다.

12명의환자에서 승모판 치환술을, 7명의 환자에서 증복판막 치환술(승모판 및 대동맥판), 그리고 나머지 2례에서 대동맥판 치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중 2례는 조직판막치환후 판막기능부전으로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였다. 평균 체외순환시간은 108 ± 33.3 이었고, 대동맥 차단시간은 76 ± 28 이었다. 심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한 심박출계수(Ejection Fraction %)는 수술전 56.6 ± 8.34 에서 수술후 58.0 ± 9.79 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NYHA기능 분류에 의한 호흡곤란의 평가는 수술전 평균 2.86 ± 0.73 에서 수술후 1.4 ± 0.5 로 호전 되었다. 그외 수술후 평균 중환자실 체류시간은 56.9 ± 22.5 (hr)였다.

수술후 사망례는 없었다. 심부정맥, 심내막증 및 판막기능부전 등의 합병증은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수술전 좌심방내 혈전 및 경미한 뇌경색을 보인 1례에서 수술후 뇌경색증상이 악화되었다.

그외 구조 및 혈류역학적 특성, 수술시 조작의 편리성, 증상의 개선, 수술후 기능평가의 용이성 및 소음 등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